글로벌 P세대의 유쾌한 도전 ❶ 호주서 북한 인권 전시회 연 27세 디자이너 김해원씨

20~30대 P세대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도전을 즐기고(Pleasant) 자신만의 개성(Personality)으로 평화(Power n Peace)를 지향하는 '천안함 P세대'의 유전자(DNA)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개척자(Pioneer)들이다. 인권·구호활동과 문화·예술사업, 국제기구 등 분야를 넘나들며 한국을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이들의 땀과 성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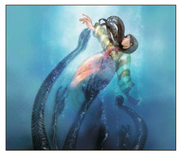
"탈북자 공개처형 접하고 북 인권에 눈떠 연말엔 아프리카 소년병 비극 알릴 것"

〈child soldier〉

담대한 도전
지구촌 작가 30명에게 SOS
미국·중국·호주서 9명 동참

끈질긴 시도
국제인권영화제에 후원 요청
한국인 최초로 승낙 받아내

기적을 보다
남북한 구분 못하는 호주서
관객 2000명 몰리는 성황



지난 5일 멜버른의 디자인스튜디오에서 김해원(27)씨가 태블릿 펜으로 작업하며 "그림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지난해 김씨가 연 북한 인권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 왼쪽부터 두만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북한 주민, 바깥세상을 동경하는 어린이, 탈출에 성공하고도 중국으로의 입국을 거부당하는 소녀의 모습을 표현했다. 멜버른=이한길 기자

글로벌 'P세대'의 특징

Pioneer(개척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다
Patriotism(애국심) 애국심에 눈뜨다
Pleasant(유쾌) '현빈 세대' 군대도 즐겁게 간다
Power n Peace(평화) 힘 있어야 평화 지킨다
Pragmatism(실용) 진보·보수의 이분법 거부
Personality(개성) SNS로 자기 생각 적극 알린다

"제가 정치적이냐고요? 아니요. 북한 인권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저스티스(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난 5일 호주 멜버른의 작업실에서 만난 디자이너 김해원(27·여)씨는 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시회 주제는 '비밀의 왕국 이야기(The story of a secret state).'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의 실상을 일러스트레이션(삽화)으로 보여주는 이 전시회는 지난해 호주 국제인권영화제(HRAFF)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씨는 5월 뉴질랜드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국 등에서 순회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가 호주에 온 건 고2 때인 2001년. 사실 한국에선 '문제아'였다. 선화예중 시절, 입시 교육을 견디지 못해 겉돌았고 술·담배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김씨는 호주의 자율 교육을 접한 뒤 마음을 잡고 공부해 2003년 호주의 미술 명문인 모나시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 2년간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2009년 1인 디자인 기업 '심포니픽셀'을 창업했다. 전공은 웹 디자인이지만 패션·영상·인테리어 디자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김씨가 북한 인권에 눈을 뜬 것은 2009년 5월 멜버른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접하면서였다. 어린 아이들이 목숨 걸고 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고, 발각되면 가족이 공개처형을 당한다는 얘기였다. 시신이 시장에 고기로 팔려 나간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게 주민들을 돕는 길이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나 4강 진출 대신 북한의 김정일이나 핵폭탄 같은 뉴스만 떠올리는 것도 너무 속상했어요."

김해원씨의 글로벌 DNA

1. 무거운 주제인 인권 문제도 유쾌하게 접근해 호응을 끌어낸다
2. 국적·인종·성별을 가리지 않는 친화력으로 세계인을 친구로 만든다
3.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경계를 넘나든다

방법을 고민하던 김씨는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전시회를 택했다. 남한과 북한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호주인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선 추상화보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준비는 쉽지 않았다. '햇병아리' 디자이너를 선뜻 후원해 줄 단체는 없었다. 먼저 30여 명의 작가에게 무작정 e-메일을 보내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를 요청했다. 오랜 설득 끝에 한국·호주·중국·미국 등에서 작가 9명이 동참했다.

후원을 받기 위해 멜버른의 국제인권영화제 사무국을 찾아갔다. 영화제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 결국 승낙을 받아냈다. 한국인으로선 최초였다. 호주 한인회의 후원도 끌어냈고 기부금 모집 파티도 열었다. 전시회 비용 1만 달러(약 1100만원) 중 4000달러는 자신이 부담했다. 김씨는 "돈은 또 벌면 되니까요"라고 '쿨'하게 말했다.

전시회가 열린 지난해 4월 26일, 전시회 개막식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씨는 가슴이 벅차 눈물을 터뜨렸다. 꿈을 현실로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다. 총 27점의 그림은 북한 사람들의 굶주린 삶, 목숨을 건 탈북 과정, 탈출 후 겪는 차별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전시했다. 전시회는 2주 동안 2000여 명이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호주 주요 일간지 '에이지(Age)'와 인터넷 언론 등에도 소개됐다.

김씨는 뉴질랜드·중국 순회전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김씨는 한동대 학생들의 모임인 북한인권학회 주최로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북한 수용소 전시회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를 2만5000여 명이 관람했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순회전을 열려고 해요.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며 새롭게 깨달은 애국심을 모국의 젊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올 연말에는 아프리카 '어린이 군인(child soldier)'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김씨는 "디자이너로 사는 한 매년 세계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겠다"고 했다. 젊은 디자이너가 인권 문제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디자이너는 그저 예쁜 물건을 만드는 직업이 아닙니다. 작품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입니다"고 답했다. 김씨의 꿈은 그래서 '디자인으로 지구 정복'이다.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다. 멜버른(호주)=이한길 기자 oneway@joongang.co.kr

취재일기

"사감위 불법도박 방치" 국회서 혼쭐난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당시 사회 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때문에…"

▶한나라당 한 의원="바다이야기는 합법입니까?"

▶사감위 김 위원장="불법입니다."

14일 오후 국회 본청 6층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이 "사감위는 2007년 9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기구로 출범했다"고 밝히자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나듯 이날 업무보고의 가장 큰 쟁점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불법 사행산업 괜찮에 대한 우려에서 탄생한 사감위가 정작 불법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본지 4월 14일자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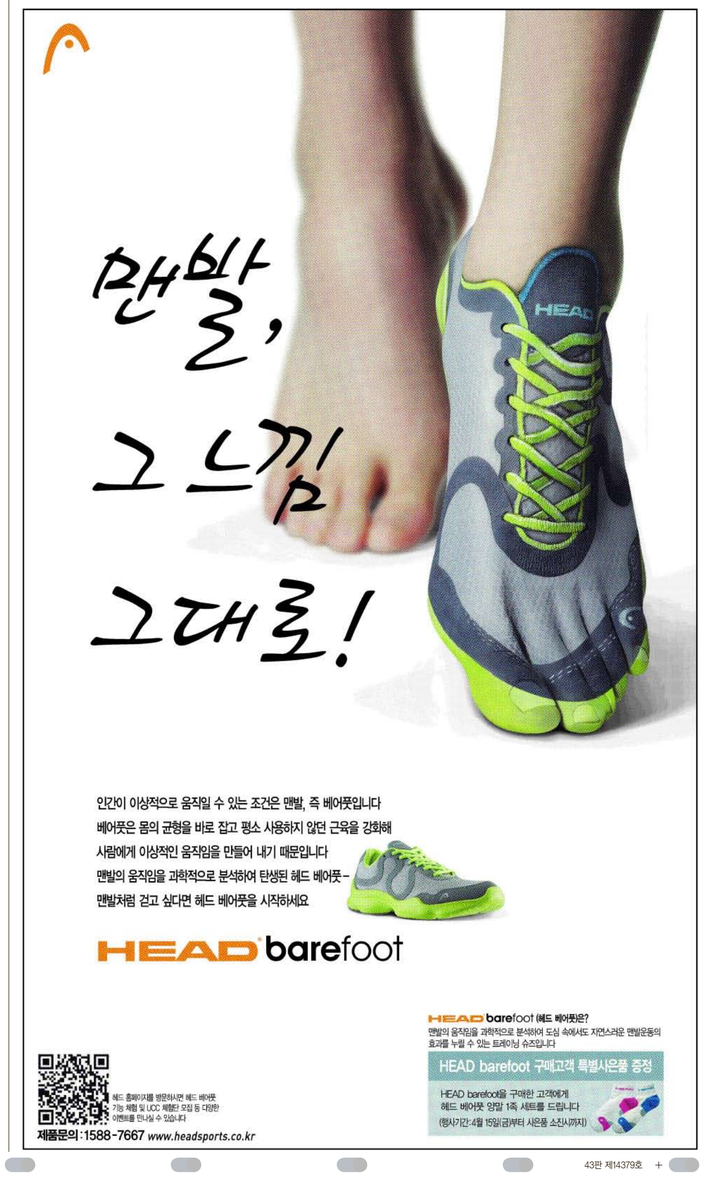
한 의원은 "불법 시장을 계속 방치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3년간 5건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사감위는 불법 도박 단속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도박중독자 치료·예방업무를 협력해 하자는 공문을 보냈는데 사감위에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만약 사감위가 불법 도박 단속에 적극 나섰다면 여의도 보관업체 10억원 발견, 전북 김제의 '마늘밭 형제'사건 같은 일이 잇따라 일어났을까. 의원들은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다면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오늘날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감위가 스포츠토토 같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과다하게 규제해 그 수요가 불법 사행산업 쪽으로 갔다"며 '풍선효과' 문제를 거론했다.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 김 위원장은 "2008년 개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사행산업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사감위가 도박중독 치료 등 사후 대처에 그쳐온 것은 안일한 자세라 질타받을 만하다. 이제라도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불법 사행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도박은 망국병이라고들 한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땅을 파면 5만원권 돈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거듭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enjoy@joongang.co.kr

송지혜 사회부문 기자



"외상환자 더 살리자" 이국종-김문수 손잡았다

〈석해균 선장 살린 의사〉 〈경기도지사〉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오른쪽)가 구급전용 헬기 내부를 김문수 경기지사(가운데)에게 설명하고 있다.

"소방헬기, 사고현장 즉각 투입"
경기도-아주대병원 MOU 체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국종 교수 돕기에 나섰다. '중증 외상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경기도와 아주대병원은 14일 도청에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지 4월 8일자 1면〉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의료원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아덴만 여명작전' 도중 총격을 입고 국내로 이송돼 아주대병원 이국종(43) 교수팀의 치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이름을 따서 '석해균 프로젝트'로도 불린다.

MOU에 따라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팀이 중증 외상환자의 이송을 위해 도소방본부 상황실에 헬기를 요청하면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팀이 사고 현장에 헬기로 찾아간다. 중증외상팀은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치료를 할 수 있다. 응급치료장비를 갖춘 이탈리아의 아구스타 AW-139기 등 도 소방본부와 소방방재청 소속 6대의 헬기가 활용된다.

이국종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10여 년간 탁상회의만 했었는데 이제야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증외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2만8359명이었고 이 중 32.6%인 9245명이 신속한 구조와 치료가 있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천성관 가족 정보 유출' 관세청 직원 해임 정당

〈전 검찰총장 후보자〉

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정치권에 제공한 직원을 관세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천 전 후보자는 '면세점 고가 쇼핑'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14일 인천공항세관 소속 9급 공무원이었던 김모(35)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보좌관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천 후보자의 두 자녀와 천씨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모씨의 출입국기록을 건네줬다. 김씨와 윤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김씨는 관세청이 2009년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네준 정보가 인사청문회에 제공돼 공익에 기여했고 정보 유출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적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

30만원 때문에…
황당한 보궐선거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은 인구가 6570명 남짓한 도심 속 농촌 마을이다. 주민의 3분의 1가량인 2100여 명이 농협 조합원이다.

이 대촌농협을 이끄는 전모(66) 조합장이 최근 물러나 조만간 5000만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선거 때 불·탈법이 드러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다. 조합장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30만원어치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화근은 농협법 정관이다. 조합장은 농협의 쌀·비료·농약 등을 일정 액수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1년간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의 20% 이상이다.

이에 따라 대촌농협의 조합장은 연평균 185만원 이상의 농협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규정이 있다. 연말에 가서 구매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연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4월 14일이면 지난해 4월 15일부터 구매금액이 185만원을 넘어야 한다. 5월 1일이 되면 지난해 5월 2일부터 구매액이 185만원을 넘어야 한다. 조합장이 하루라도 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조합장은 이 정관을 잘 지켜오다 지난달 중순 이를 어겼다. 1년간 농협 물품 구매액이 155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8일 사퇴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신고포상금 3000만원을 포함해 선거벽보와 공보물 인쇄비용 등으로 모두 5000만원이 들어간다. 광주=유지호 기자 hwaone@joongang.co.kr

고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에 구천서씨

회사 돈 100억 횡령 혐의 수사받고 있어 논란 예상

28일 정기총회서 인준여부 결정

한반도미래재단 구천서 이사장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구천서(61·경제학과 70학번)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구 이사장은 현재 회사 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려대 교우회(동문회·회장직무대행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는 14일 오후 안암캠퍼스 교우회관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었다. 교우회 측은 구 이사장과 김중권(71·법학과 59학번)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기수(66·법학과 65학번) 전 고려대 총장 등 3명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구 이사장이 최종 후보로 뽑혔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이 68표(기권 1명) 중 35표를 얻어 이 전 총장(32표)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추천위원 71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는 구 이사장(33표), 이 전 총장(28표), 김 전 실장(8표) 순이었다. 최다 득표자가 전체 투표수 중 3분의 2를 넘지 않음에 따라 1, 2위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했다.

당초 고려대 교우회장 선거는 29대 교우회장이던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직전 사퇴한 뒤 구 이사장과 김 전 실장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추천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두 후보에 대해 '보이콧'을 한 것이다. 당시 추천위원들 사이에선 "두 후보 모두 고려대 교우회의 얼굴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 이사장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때 폭력배를 동원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선거 참여를 막은 혐의로 2003년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 상장 폐지된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의 실소유주로 다른 업체와 거래한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우회 추천위는 지난달 8일 임시 교우회장단 회의를 열고 추가로 후보를 공모했고 이 전 총장이 후보로 가세했다.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이 이 전 총장을 상대로 후보 등록 무효소송을 내는 등 내홍이 이어졌다.

이날 추천위에 후보 중 유일하게 참석한 구 이사장은 "그동안 깊었던 골을 해소하고 잘못 비춰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조사는 교우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므로 법 절차에 맞게 처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우회는 2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후보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 이사장은 총회 참석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교우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효은·채승기 기자 hyoeun@joongang.co.kr